

# 『昇平曲』 연구\*

김석배\*\*

## || 차례 ||

1. 서론
2. 『승평곡』의 체제와 제작동기
3. 安玟英의 序
4. 승평계의 구성원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필자가 최근에 발굴한 안민영의 개인가집인 『승평곡』의 전반적인 성격을 연구한 것이다. 특히 『승평곡』에 수록된 안민영의 序를 통해 승평계의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19세기 후기의 가곡사 이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 논의한 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승평곡』은 최정해 씨가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으로 안민영이 1873년 4월에 열린 진작의식을 경축하기 위해 개최한 승평계의 풍류회를 자축하기 위해 5월 하순에 만든 안민영의 친필사본 개인가집이다. 여기에는 안민영의 자작 시조시 12수가 가곡창의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의 가곡풍류회에서 연창된 가곡 중에서 자신의 작품만 골라 수록한 것이다.

안민영의 서는 『승평곡』의 서(1873년)가 가장 먼저 작성되었고, 『해동악장』의 서(1876년), 『금옥총부』의 서(1880년) 순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해동악장』의 서는 『승평곡』의 서를 바탕으로 다듬었고, 『금옥총부』의 서는 『승평곡』과 『해동악장』의 서를 바탕으로 새로 다듬은 것이다.

---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1-A00282)

\*\* 금오공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승평계는 맹주인 박효관과 운영책임자인 안민영을 비롯하여 풍류객그룹, 가객그룹, 기악연주자그룹, 여항시인그룹, 기녀그룹, 기악반주자그룹 등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되었는데, 그것은 가곡이 관현악 반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승평계 구성원은 출신성분과 승평계에서의 역할과 위상도 다르지만 모두 당대에 자기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던 자들이다. 박효관과 안민영은 승평계의 주역이었고, 음률에 밝은 중인계층의 풍류객그룹은 후원자로서 승평계 운영 및 풍류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였으며, 가곡창에 뛰어난 가객그룹은 가곡창을 하였고, 기악명인인 기악연주자그룹은 가곡 반주에 필요한 거문고·가야금·대금·생황·양금 등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여항시인그룹은 가곡창에 필요한 시조시 창작에 일조하였을 것이고, 기녀그룹은 각종 진연의식의 정재여령으로 승평계 풍류판에서 가곡창을 하거나 정재를 하였으며, 기악반주자그룹은 오군영 세악수 출신으로 가곡반주에 필요한 피리·대금·해금 등을 연주하였다.

**주제어** 『승평곡』, 승평계, 해동악장, 『금옥총부』, 박효관, 안민영, 대원군, 가곡, 가곡풍류회, 풍류객그룹, 가객그룹, 기악연주자그룹, 여항시인그룹, 기녀그룹, 기악반주자그룹

## 1. 서론

19세기 후기 歌曲史를 화려하게 장식한 인물은 朴孝寬과 安珉英이었다.<sup>1)</sup> 이들이 당대의 가곡판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안민영이 1867년 권력의 핵심이었던 대원군 李昰應과 그의 맏아들 李載勉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들의 든든한 후원 아래 박효관과 함께 당대의 이름난 풍류객, 가객, 기악연주자, 여항시인, 기녀, 기악반주자들을 규합하여 昇平稷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이었다.<sup>2)</sup>

승평계에 대한 연구는 권영민 교수의 연구성과<sup>3)</sup> 이후 관련 자료의 부족

1) 조윤재, 『朝鮮詩歌史綱(訂正版)』, 박문출판사, 1950, 435-444쪽.

2) 김석배, 「승평계 연구」, 『문학과 언어』 25, 문학과언어학회, 2003.

으로 오랫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최근에 신경숙 교수에 의해 승평계 구성원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졌다.<sup>4)</sup> 그리고 2002년 2월에 안민영의 친필사본인 『승평곡』이 발견됨으로써 승평계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필자에 의해 승평계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승평곡』은 경북 구미시의 <古書坊> 주인 최정해 씨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인데 여기에는 안민영의 시조시 12수와 안민영의 序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승평곡』에 수록된 안민영의 서에는 『금옥총부』와 『해동악장』의 안민영의 서와 달리 승평계 구성원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 승평계 연구 및 19세기 후기 가곡사 연구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승평곡』의 자료적 가치에 주목하며 『승평곡』의 전반적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승평곡』의 체제와 제작동기

『승평곡』의 서지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승평곡』은 가로 10.7cm · 세로 23.3cm 크기의 10張 1冊의 필사본이다. 우측에 다섯 개의 針孔이 있는 전통적인 五針眼訂의 線裝本이며 표제명은 『昇平曲』이다. 1면(第一張 前面)에 “昇平稷賀祝”이라 하고, 이어 작품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승평계를 연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歌集임을 알 수 있다. 『승평

- 
- 3) 권두환, 「조선후기 시조가단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71-79쪽.  
 4) 신경숙, 「안민영과 기녀」, 『민족문화연구』 10,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신경숙, 「안민영과 예인들 -기악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1, 안암어문학회, 2000. 신경숙, 「안민영 예인집단의 좌상객 연구」, 『한국시가연구』 10, 한국시가학회, 2001.

곡』에는 안민영의 것으로 짐작되는 4종류의 낙관이 1면·14면·21면에 찍혀 있고, 20면 마지막 행이 “上之十一年 端陽節 鏡湖歸客 安玟英 字聖武 號”로 여백 없이 끝나자 그 우측에 “周翁序”라고 썼으며, ‘癸酉 五月 下澣’을 뒷표지 안쪽면에 쓰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안민영이 계유년(1873년) 5월 하한에 만든 친필본임을 알 수 있다.<sup>5)</sup> 면마다 청색의 蘭草·蓮實 등의 紋樣을 찍은 詩箋紙에 유려한 필체로 필사한 이 가집에는 안민영의 時調詩 12首가 수록되어 있고, 그 뒤에 안민영의 序가 붙어 있다.

『승평곡』에는 안민영의 시조시 12수가 가곡의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sup>6)</sup> 첫 번째 작품은 다음과 같다.

羽調 初數大葉 女唱 平中舉  
 上元甲子之春의 우리 聖上 卽位신저  
 堯舜을 法바드사 光被四表 흐오시니  
 美哉라 億萬年 東邦氣數 | 날로부터 비로샷다

이와 같이 먼저 악곡명을 밝히고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승평곡』에 수록된 시조시는 5장 양식의 가곡창에 쓰인 것이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초장만 들기로 한다.

- (1) 羽調 初數大葉 女唱平中舉 : 上元甲子之春의
- (2) 二數大葉 女唱同 : 麒麟은 들의 놀고
- (3) 中舉數大葉 女唱同 : 山行 六七里 흐니
- (4) 平舉數大葉 女唱同 : 孔德里 千條柳의
- (5) 頭舉數大葉 女唱同 : 白岳山下 옛자리의

5) 이동복, 「박효관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연구」, 『국악원논문집』 14, 국립국악원, 2002, 136-137쪽.

6) 수록 작품에 대해서는 김석배, 「〈승평곡〉에 대하여」(『선주논총』 6,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2003)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 (6) 三數大葉 女唱졸즈진난넙 : 三百尺 슬리여늘  
 (7) 騷聳 女唱同 : 洛城西北 三溪洞天的  
 (8) 栗塘數大葉 女唱以九月爲初章孔德里反界하라 : 三月花柳 孔德里요  
 (9) 二數大葉 女唱同 : 祥雲이 어린 곳의  
 (10) 平學數大葉 女唱同 : 我笑堂 秋水樓에  
 (11) 弄 女唱爲樂 : 智謀는 漢相 諸葛武侯요  
 (12) 編數大葉 女唱編 : 國太公之亘萬古英傑을

작품 (1)의 “羽調 初數大葉 女唱 平中舉”는 남창으로 부를 때는 우조 초삭대엽으로 하고, 여창으로 부를 때는 평중거로 하라는 뜻이며, (2)-(5) · (7) · (9) · (10)의 “女唱同”은 남창과 동일하게 부르라는 뜻이다. (6)의 “女唱졸즈진난넙”과 (11)의 “女唱爲樂” 그리고 (12)의 “女唱編”은 각각 여창으로 할 때는 졸자진한넙(頭舉), 樂, 編으로 하라는 것이다. (8)의 “女唱以九月爲初章 孔德里反界하라”는 여창으로 부를 때는 ‘九月楓菊 삼계동을’ 초장으로 하여 우조로 부르고, ‘孔德里’부터는 계면조로 變調하라는 뜻이다. 즉 초장이 ‘九月楓菊 三溪洞이요 三月花柳 孔德里라’가 된다.<sup>7)</sup> ‘울당삭대엽’은 半葉과 같은 것이다.<sup>8)</sup>

작품 (1)-(2)는 고종의 등극을 賀祝한 것이고, (5)는 경복궁 중건을 하축한 것이다. 그리고 (3)과 (4)는 昇平 곧 태평성대를 노래한 것이고, (6)-(12)는 모두 대원군과 관련된 것으로 대원군을 賞讚 · 頌祝하거나 태평성대임을 노래한 것이다.

7) 九月楓葉 三溪洞이요 三月花柳 孔德里라 / 我笑堂 봄바람과 米月舫 가을달을 / 어즈버 六花 | 紛紛時의 賣酒咏梅 하시다(半齣數大葉, 『해동악장』 715번, 여창).  
 8) 울당삭대엽은 밤엿삭대엽, 반엿삭대엽(栗齣數大葉 或稱半齣數大葉, 『가곡원류』), 회계삭대엽(回界數大葉 俗稱 栗齣數, 『금옥총부』) 등으로도 불린다. ‘栗齣’은 ‘밤엿’의 차자 표기인데 ‘半齣’으로도 쓴다. 半葉은 소용 다음에 부르는 악곡으로 半羽半界의 악곡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곧 평조 선법으로 부르다가 중여음에서 계면조로 변조하여 이후 가곡창이 계면조로 전환되는 역할을 하는 악곡이다.

그런데 『승평곡』에 수록된 작품은 12수에 불과하다. 『승평곡』은 ‘약식의 한바탕’으로 승평계 결성을 축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작품집이라는 견해가 있다.<sup>9)</sup>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승평곡』은 계유년(고종 10년) 4월 18일에 열린 대왕대비 책봉 40년을 경축하는 진작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작품들은 계유년의 진작의식이 거행된 얼마 후에 그것을 賀祝하기 위해 승평계가 연 풍류판에서 불렀던 것이다.

진작의식을 하축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그 자리에는 승평계의 절대적인 후원자였던 대원군과 이재면이 좌상객으로 참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 가곡풍류회는 성대하고 화려하게 벌어졌을 것이다. 대원군과 이재면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대원군의 절대적인 후원 아래 승평계를 운영하고 있던 승평계의 성격으로 보아 이 풍류회는 국가적 경사를 하축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참석하였을 터이고, 그 내용 또한 성대하기 마련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작의식을 하축하는 성대한 가곡풍류회에서 부른 가곡창은 적어도 ‘약식’이 아니라 가곡창의 순서에 따라 ‘정식’으로 全曲이 연창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가곡창에는 남창, 여창, 남녀창이 있는데, 이 때의 풍류회에서 실제 연창한 것이 그 중에서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풍류회의 성격상 적어도 여창은 아니었고 남창이었거나 남녀창이었을 것이다.

안민영이 활동하던 19세기 후기의 가곡은 현행 가곡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현행 가곡에서는 생략하지 않고 전부 부를 경우 남창은 24곡, 여창은 15곡, 남녀창은 17곡으로 짜여져 있다. 이를 기준을 생각해 보면 남창으로 했을 경우는 24곡을, 남녀창으로 했을 경우는 17곡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

9) 신경숙, 「『가곡원류』 여창사설 확대의 의미」, 『국악원논문집』 14, 국립국악원, 2002, 195쪽.

데 『승평곡』에는 12수만 수록되어 있다. 왜 전부를 수록하지 않고 12수만 수록한 것일까? 『승평곡』에 수록된 작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승평곡』에는 가곡창의 순서대로 12수를 수록하면서도 가곡창의 마지막에 반드시 부르는 ‘太平歌’<sup>10)</sup>를 수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곡에 정통했던 안민영이 태평가를 수록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민영은 왜 『승평곡』에 태평가를 수록하지 않았을까? 『승평곡』의 12작품 중에서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옥총부』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안민영의 작품이 틀림없다. (2)번 작품이 『금옥총부』에 수록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그것 역시 안민영의 작품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안민영이 태평가를 수록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해진다. 계유년 진작의식을 하축하는 가곡풍류회 자리에서 불려진 가곡 중에서 자신의 작품만을 가곡창의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기 때문이다. 안민영은 강릉의 鏡湖(鏡浦)를 다녀와서 자신의 주관하에 벌였던 계유년의 화려했던 가곡풍류회를 회상하면서 그 모임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불렸던 작품 중에서 자신의 작품 12수만 가려 『승평곡』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남창가곡의 순서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창가곡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표 붙인 것은 적게 생략할 때 부르지 않는 곡이고, ▲표 붙인 것은 많이 생략할 때 부르지 않는 곡이다.<sup>11)</sup> 다만 (11)번은 언릉과 평릉 중에서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10) ‘太平歌’는 歌集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곡원류』(국악원본)의 태평가(編數大葉)는, “이리 ㅎ여도 太平聖代 저리 ㅎ여도 聖代로다 堯之日月이요 舜之乾坤이라 우리도 太平聖代니 놀고 놀너 ㅎ노라 歌畢奏臺”로 되어 있다.

11) 장사훈 『국악사론』, 대광문화사, 1983, 235-236쪽.

| 남창가곡 |          |    | 승평곡 |         |                 |
|------|----------|----|-----|---------|-----------------|
| 順序   | 曲名       | 歌番 | 曲名  |         |                 |
|      |          |    | 男唱  | 女唱      |                 |
| 1    | 羽調 初數大葉  |    | 1   | 羽調 初數大葉 | 平中學             |
| 2    | 二數大葉     | ▲  | 2   | 二數大葉    | 二數大葉            |
| 3    | 中學       | ●▲ | 3   | 中學數大葉   | 中學數大葉           |
| 4    | 平學       | ●▲ | 4   | 平學數大葉   | 平學數大葉           |
| 5    | 頭學       | ▲  | 5   | 頭學數大葉   | 頭學數大葉           |
| 6    | 三數大葉     |    | 6   | 三數大葉    | 즐조진난님           |
| 7    | 騷聳       |    | 7   | 騷聳      | 騷聳              |
| 8    | 半葉       |    | 8   | 栗糖數大葉   | 女唱以九月爲初章孔德里反界후라 |
| 9    | 界面調 初數大葉 |    |     |         |                 |
| 10   | 二數大葉     | ▲  | 9   | 二數大葉    | 二數大葉            |
| 11   | 中學       | ●▲ |     |         |                 |
| 12   | 平學       | ●▲ | 10  | 平學數大葉   | 平學數大葉           |
| 13   | 頭學       | ▲  |     |         |                 |
| 14   | 三數大葉     |    |     |         |                 |
| 15   | 騷聳       |    |     |         |                 |
| 16   | 言弄       |    | 11  | 弄       | 樂               |
| 17   | 平弄       | ●▲ |     |         |                 |
| 18   | 界樂       | ●▲ |     |         |                 |
| 19   | 羽樂       |    |     |         |                 |
| 20   | 言樂       |    |     |         |                 |
| 21   | 編樂       |    |     |         |                 |
| 22   | 界面調 編數大葉 |    | 12  | 編數大葉    | 編               |
| 23   | 言編       |    |     |         |                 |
| 24   | 太平歌      |    |     |         |                 |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남창가곡을 약식으로 부를 때 생략하지 않는 곡인 (9)계면조 초삭대엽, (14)삼삭대엽, (15)소용, (19)우락, (20)언락, (21)편락, (23)언편, (24)태평가 등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녀창가곡이나 여창가곡과 비교해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sup>12)</sup>

『승평곡』에 수록된 작품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동악장』과 『금옥총부』<sup>13)</sup>



에도 실려있다.

| 승평곡 |         | 해동악장 |       | 금옥총부 |              |
|-----|---------|------|-------|------|--------------|
| 가번  | 곡 명     | 가번   | 곡 명   | 가번   | 곡 명          |
| 1   | 羽調 初數大葉 | 24   | 二數大葉  | 1    | 羽調 初數大葉      |
| 2   | 二數大葉    | 723  | 界二數大葉 | ·    | 없음           |
| 3   | 中學數大葉   | 78   | 羽中學   | 39   | 中學數大葉        |
| 4   | 平學數大葉   | ·    | 없음    | 56   | 平學數大葉        |
| 5   | 頭學數大葉   | 121  | 頭學    | 76   | 頭學數大葉        |
| 6   | 三數大葉    | ·    | 없음    | 91   | 三數大葉         |
| 7   | 騷聳      | 153  | 弄歌    | 96   | 騷聳           |
| 8   | 栗糖數大葉   | 159  | 栗糖數大葉 | 100  | 回界數大葉 俗稱 栗糖數 |
| 9   | 二數大葉    | 678  | 界二數大葉 | 13   | 二數大葉         |
| 10  | 平學數大葉   | ·    | 없음    | 57   | 平學數大葉        |
| 11  | 弄       | 831  | 羽樂    | 152  | 弄            |
| 12  | 編數大葉    | 636  | 編數大葉  | 175  | 言編           |
|     |         | 637  | 編數大葉  | 168  | 編數大葉         |

- 12) 참고로 여창가곡이나 남녀창가곡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여창가곡 : 〈羽調〉 ①二數大葉 ②中學 ③平學 ④頭學 ⑤半葉(2장 12박, 또는 중여음에서 계면조로 변조함) 〈界面調〉 ⑥二數大葉 ⑦中學 ⑧平學 ⑨頭學 ⑩平弄(5장에서 평조로 변조함) 〈羽調〉 ⑪羽樂 ⑫還界樂(3장에서 계면조로 변조함) 〈界面調〉 ⑬界樂 ⑭編數大葉 ⑮太平歌, 남녀창가곡 : 〈羽調〉 ①남창 初數大葉 ②여창 二數大葉 ③남창 中學●▲ ④여창 中學●▲ ⑤남창 平學●▲ ⑥여창 平學●▲ ⑦남창 三數大葉 ⑧여창 頭學 ⑨남창 騷聳 ⑩여창 半葉(2장 12째 박, 또는 중여음에서 계면조로 변조함) 〈界面調〉 ①남창 初數大葉 ②여창 二數大葉 ③남창 中學●▲ ④여창 中學●▲ ⑤남창 平學●▲ ⑥여창 平學●▲ ⑦남창 三數大葉 ⑧여창 頭學 ⑨남창 言弄 ⑩여창 平弄 ⑪남창 界樂●▲ ⑫여창 界樂●▲ ⑬남창 言樂 ⑭여창 羽樂 ⑮남창 編樂 ⑯여창 編數大葉, 또는 編 ⑰남녀병창 太平歌. 장사훈 『국악사론』, 대광문화사, 1983, 236-238쪽.
- 13) 『금옥총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가람본〉)과 충남대 도서관 소장본이 전하고 있으며, 이명선이 소장하였던 이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최근에 김신중 교수에 의해 〈가람본〉이 〈충남대본〉보다 원본에 가까운 것이고, 『금옥총부』에 수록된 작품 수도 180수가 아니라 181수임이 밝혀졌다. 즉 종래에 한 작품으로 이해하였던 172번 작품을 “不學이 無聞이면 正牆面而立이 어니 … 그러미(뒷부분 결락)”와 “雲車를 머므르고 芳草岸에 괴여올나 … 俄已오 石逕隱隱 비긴 길노 緇衣白衲이 次例로 느러오며 舍掌拜禮허더라”로 다른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신중, 『역주 금옥총부』, 박이정, 2003.

이들 사이에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작품(1)의 경우 밑줄 그은 것이 『승평곡』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羽調 初數大葉 女唱 平中舉  
上元甲子之春의 우리 聖上 卽位신저  
堯舜을 法바드사 光被四表 흐오시니  
美哉라 億萬年 東邦氣數 | 닐로부터 비로샷다(『승평곡』 1번)

上元甲子之春의 우리 聖上 卽位신저  
堯舜을 法바드샤 光被四表 흐오시니  
美哉라 億萬年 東邦氣數 | 일노붓허 비로샷다(『해동악장』 24번)

上元甲子之春에 우리 聖上 卽位신저  
堯舜을 法바드스 光被四表 허오시니  
美哉라 億萬年 東邦氣數 | 이로쫘츠 비로샷다(『금옥총부』 1번)

그러나 (2)번은 『금옥총부』에는 없고(『가곡원류』, 작자 미상), (12)번은 『해동악장』과 『금옥총부』에는 다음과 같이 두 작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國太公之亘萬古英傑을 이제 되와 으논컨디  
精神은 秋水여늘 氣像은 山岳이라 萬機을 躬攝흐니 四方이 風動이라 禮樂法  
도와 衣冠文物이여 苑囿宮室과 府庫倉廩이며 劍戟刀鎗을 燦然更張흐시단 말  
가 그맛과 歌舞音律과 書畫古調에란 엇지 그리 받그시든고 니 일즉 숨을 어더  
文武周公을 되온 후의 前身이 항여 吉人이런가 心獨喜而自負 | 러니  
果然的 我笑堂上 봄바람의 當世英傑을 되왔거다  
(編數大葉 女唱編, 『승평곡』 12번)

國太公之萬古英傑을 이제 되와 議論건던  
精神은 秋水여술 氣像은 山岳이라 萬機를 躬攝흐니 四方의 風動이라 禮樂法  
도와 衣冠文物이여 園囿宮室과 府庫倉廩이며 旌旄節旗와 劍戟刀鎗을 燦然

更張하시단 말가

그버거 金石鼎彝와 書畫音律의만 엇디 그리 붉그신고  
(編數大葉, 『해동악장』 636번)

國太公之巨萬古英傑 이제 뵈와 議論컨디

精神은 秋水여늘 氣像은 山岳이라 萬機를 躬攝허니 四方에 風動이라 禮樂法  
도와 衣冠文物이며 旌旄節旗와 劍戟刀鎗을 燦然更張하시단 말가  
그밧게 金石鼎彝와 書畫音律에란 엇지 그리 발근신고  
(言編, 『금옥총부』 175번)

너 일즉 文武公을 어더 文武公을 뵈은 後의

前身이 흥혀 吉人이런가 心獨喜自負 | 러니  
果然的 我笑堂上 봄바름의 當世英傑을 뵈와거다  
(編數大葉, 『해동악장』 637번)

너 일즉 꿈을 어더 文武周公을 뵈은 後에

前身이 況兮 吉人이런가 心獨喜而自負 | 러니  
果然的 我笑堂上 봄바름에 當世英傑을 뵈섯거다  
(編數大葉, 『금옥총부』 168번)

안민영은 이와 같이 완벽한 가곡창을 위해 시조의 사설은 물론 악곡까지 손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승평곡』 序의 “그러나 재주가 모자라고 아는 것이 보잘것없어 말이 대부분 비속했다. 삼가 선생에게 나아가 질정을 구하여潤色하고 存削한 후에야 완벽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 것이나 『금옥총부』에 수록되어 있는 박효관의 序의 “그때 오직 석파대로와 우석상공 역시 음률에 밝으시고 擊岳에 뛰어나시니 주옹이 知己人으로 여기고 오랫동안 모시면서 그분들을 위해 수백 闕의 新歌를 지었다. 나에게 고저, 청탁, 協律, 合節 등을 교정하고 풍류재자와 樂工을 가르쳐 관현에 올려 좋은 놀이와 즐거운 일을 노래하게 하기를 요구하였으므로 보잘것없는 지식과 아둔한

재주를 피하지 아니하고 一編을 교정하였으니 후학들에게 流傳되기를 바란다.”<sup>14)</sup>에서도 확인된다.

### 3. 安玟英의 序

안민영의 서는 『승평곡』과 『해동악장』, 『금옥총부』<sup>15)</sup>에도 수록되어 있

14) 時維石坡大老及又石相公 亦曉通音律 聖於擊岳 周翁爲知己人 長常陪過 而爲之作數百闋新歌 要余校正高低清濁協律合節 使訓才子賢伶 被以管絃 唱爲勝遊樂事 故不避識度才鈍 校正一編 願流傳後學焉

15) ▶해동악장 : 雲崖朴先生 平生善歌 每於水流花開之夜 月明風清之辰 供金樽案檀板 喉轉聲發 瀏亮清越 不覺飛樑塵 過流雲 雖古之龜年善才 無以加焉 以故教坊句欄 風流才子 冶遊士女 莫不推重之 不名與字 而稱朴先生 時則有豪華富貴及遺逸風騷之人 設契曰昇平稷 惟歡謙謙樂是事 而先生實主盟焉 余上酷好是道 竊慕先生之風 虛心相隨將三十年于茲矣 噫吾儕生逢聖時 共躋壽域而上有 國太公石坡大老爺 窮攝律呂 調以正之 鍊以精之 使後來之人 皎然無疑 是豈非千載一時也歟 余不禁鼓舞作興之思 不避猥越 乃與碧江金允錫君仲相確 而作新齣數闋 歌詠聖德 以寓慕天繪日之誠 然才疎識蔑 語多俚陋 謹以就質于先生 潤色之存削之然後 成完璧 於是名姬賢伶 被之管絃 競唱迭奏 亦一代盛事也 爰錄于曲譜之末 使後來同志之人 咸知吾儕之生斯世 而有斯樂也 先生名孝寬 字景華 號雲崖 國太公所賜之號也 丙子榴夏節 周翁 安玟英 序.

▶금옥총부 : 雲崖朴先生 平生善歌 名聞當世 每於水流花開之夜 月明風清之辰 供金樽按檀板 喉轉聲發 瀏亮清越 不覺飛樑塵而過於雲 雖古之龜年善才 無以加焉 以故教坊句欄 風流才士 冶遊士女 莫不推重之 不名與字而稱朴先生 時則有友臺某某諸老人 亦皆當時聞人豪傑之士也 結稷曰老人稷 又有豪華富貴及遺逸風騷之人 結稷曰昇平稷 惟歡誤謙樂是事 而先生實主盟焉 余酷好是道 竊慕先生之風 虛心相隨 將四十年于茲 噫吾儕生逢聖世 共躋壽域 而上有國太公石坡大老 躬攝萬機 風動四方 禮樂法度 燦然更張 而至音樂律呂之事 無不精通 繼而又石尙書 尤皦如也 豈非千載一時也歟 余不禁鼓舞作興之思 不避猥越 與碧江金允錫君仲相確 迺作新齣數十闋 歌詠盛德 以寓慕天繪日之誠 又輯前後謾詠數百闋 作爲一篇 謹以就質于先生 存削之潤色之然後 成完璧 於是名姬賢伶 被之管絃 競唱迭和 亦一代勝事也 爰錄于曲譜之末 使後來同志之人 咸知吾儕之生斯世 而有斯樂也 先生名孝寬 字景華 號雲崖 國太公所賜號也 上之十八年 庚辰臘月 口圃東人 安玟英 字聖武 初字荊寶 號周翁 序

다. 『승평곡』에 수록된 것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고, 또한 당시의 승평계 구성원의 구체적인 명단이 수록되어 있어 승평계 연구의 획기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안민영의 서에 대해서는 강전섭과 김현석에 의해 검토되었지만<sup>16)</sup> 이제 『승평곡』의 서가 발견됨으로써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음은 『승평곡』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안민영의 ‘序’이다.

雲崖朴先生 平生善歌①名聞當世 每於水流花開之夜 月明風清之辰 供金樽按檀板 喉轉聲發 瀏亮清越 不覺飛樑塵②過流雲 雖古之龜年善才 無以加焉 以故教坊句欄 風流才子 冶遊士女 莫不推重之 不名與字而稱朴先生 ③時有友坵某某諸老 亦皆當世聞人豪之士也 結稷曰 老人稷 ④[又有朴漢英 孫德仲 金洛鎮 姜宗澗 白元圭 李濟榮 鄭錫煥 崔鎮泰 張甲福 蓋當時豪華風流通音律者也 崔壽福 黃子安 金啓天 宋元錫 河駿鯤 金興錫 蓋當時名歌也 吳岐汝 安敬之 洪用卿 姜卿仁 金君仲 蓋當時名琴也 金士俊 金士極 蓋當時珈仰琴之名手也 李聖教 金敬南 沈魯正 蓋當時名簫也 金雲才 名笙也 安聲汝 良琴之名手也 洪振源 徐汝心 蓋當時遺逸風騷者也 大邱桂月 江陵杏花 昌原柳綠 潭陽彩姬 完山梅月 蓮紅 蓋名姬也 千興孫 鄭若大 尹順吉 蓋當時賢伶也 設稷曰 昇平稷 惟歡娛讌樂是事 而先生實主盟焉] 余酷好是竊慕先生之風 虛心相隨將三十年于茲矣 噫 吾儕生逢聖世 共躋壽域而上有 國太公石坡大老爺閣下 ⑤躬攝萬機 風動四方 禮樂法度燦然更張 而至於音樂律呂之事 尤皦如也 豈非千載一時也歟 余不禁鼓舞作興之思 不避猥越 遂作新編數闋 謠咏聖德 以摹天繪日之誠 ⑥然才疎識蔑 語多俚陋 謹以就質于先生潤色之存削之 然後成完璧 於是 名姬賢伶 被之管絃 競唱迭和 亦一代勝事也 爰錄于曲譜之末 使後來同志之人 知吾儕之生斯世 而有斯樂也 先生名孝寬 字景華 雲崖 國太公所賜號也 ⑦上之十一年 端陽節 鏡湖歸客 安攻英 字聖武 號周翁序 癸酉 五月 下澣.<sup>17)</sup>

16) 강전섭, 『『금옥총부』에 대하여』, 『한국고전문학연구』, 대왕사, 1982.

김현석, 『안민영의 가집편찬과 시조문학양상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강전섭, 『안민영 서문의 ‘爰錄于曲譜之末’에 대한 釋明』, 『시조학논총』 16, 한국시조학회, 2000.

고종 10년인 계유년을 ‘上之十一年’이라고 한 것은 고종이 실제 등극한 癸亥年부터 起算했기 때문이다. 고종은 1863년 12월 13일에 등극하였다. 『해동악장』(丙子, 1876년)과 『금옥총부』(庚辰, 1880년)에 수록된 안민영의 序는 『승평곡』의 序와 일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드러지게 차이는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승 평 곡 : ① 名聞當世, ② 遏流雲, ③ 時有友坵某某諸老 亦皆當世聞人 豪之士也

해동악장 : ① 없음, ② 而流風, ③ 時則 이하 없음

금옥총부 : ① 名聞當世, ② 遏流雲, ③ 時則有友臺某某諸老 亦皆當時聞人 豪傑之士也

승 평 곡 : ④ 又有朴漢英 孫德仲 金洛鎮 姜宗熙 白元圭 李濟榮 鄭錫煥 崔鎮泰 張甲福 盖當時豪華風流通音律者也 崔壽福 黃子安 金啓天 宋元錫 河駿鯤 金興錫 盖當時名歌也 吳岐汝 安敬之 洪用卿 姜卿仁 金君仲 盖當時名琴也 金士俊 金士極 盖當時珈儻琴之名手也 李聖教 金敬南 沈魯正 盖當時名簫也 金雲才 名笙也 安聲汝 良琴之名手也 洪振源 徐汝心 盖當時遺逸風騷者也 大邱桂月 江陵杏花 昌原柳綠 潭陽彩姬 完山梅月 蓮紅 盖名姬也 千興孫 鄭若大 尹順吉 盖當時賢伶也 設稷曰 昇平稷,

해동악장 : ④ 有豪華富貴及遺逸風騷之人

금옥총부 : ④ 又豪華富貴及遺逸風騷之人

승 평 곡 : ⑤ 躬攝萬機 風動四方 禮樂法度燦然更張 而至於音樂律呂之事 尤皦如也

해동악장 : ⑤ 躬攝律呂 調以正之 鍊以精之 使後來之人 皎然無疑

금옥총부 : ⑤ 躬攝萬機 風動四方 禮樂法度 燦然更張 而至音樂律呂之事 無不精通 繼而又石尙書 尤皦如也

17) ‘珈儻琴’의 ‘儻’은 원문에 ‘王+耶’로 되어 있다.

승 평 곡 : ⑥ 然才疎識蔑 語多俚陋  
 해동악장 : ⑥ 然才疎識蔑 語多俚陋  
 금옥총부 : ⑥ 又輯前後謾詠數百闕作爲一篇

승 평 곡 : ⑦ 上之十一年 端陽節 鏡湖歸客 安玟英 字聖武 號周翁 序 癸酉五月下澣  
 해동악장 : ⑦ 丙子 榴夏節 周翁 安玟英 序  
 금옥총부 : ⑦ 上之十八年 庚辰臘月 口圃東人安玟英 字聖武 初字荊寶 號周翁 序

이상에서 『금옥총부』의 서는 『해동악장』의 서보다 『승평곡』의 서에 더 가깝고, 『승평곡』의 서(계유년, 1873) → 『해동악장』(병자년, 1876) → 『금옥총부』(경진년, 1880)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때마다 부분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해동악장』의 서는 『승평곡』의 서를 바탕으로 다듬은 것이고, 『금옥총부』의 서는 『승평곡』과 『해동악장』의 서를 바탕으로 다듬은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해동악장』과 『금옥총부』에 수록된 안민영의 서에서 어색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이에 곡보의 끝에 기록하여”(爰錄于曲譜之末)는 『승평곡』의 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4. 승평계의 구성원

주지하듯이 박효관과 안민영은 승평계를 통해 19세기 후기의 가곡계를 주도했다. 승평계는 1867년에 안민영이 대원군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결성되었고, 대원군이 타계한 1898년 무렵까지 30여 년 유지되었던 가곡풍류회였다. 박효관과 안민영을 중심으로 풍류객그룹, 가객그룹, 기악연주자

그룹, 여향시인그룹, 기녀그룹, 기악반주자그룹 등으로 결성된 이 풍류집단은 대원군과 그의 장남 이재면의 든든한 후원 아래 인왕산의 필운대 일원을 무대로 풍류판을 벌이고 가곡을 즐겼다.18) 박효관·안민영 그룹이 벌인 가곡풍류회의 모습은 『금옥총부』의 여러 곳에 보이는데, 안민영은 그들이 즐긴 호화로운 풍류현장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仁王山下 弼雲臺는 雲崖先生 隱居 또 어디 잇스리  
 先生號雲崖也 又石尙書愛以敬之逐居地라  
 先生이 豪放自逸하야 不拘少節하고 嗜酒善歌하니 酒量은 李白이요 歌聲은 龜年이라 風流才子와 冶遊士女들이 구름갓치 모여들어 날마다 風樂이요 씩마다 노리로다 잇씨에 太陽館 又石尙書 | 歌音에 皎如허사 遺逸風騷人과 名姬 賢伶들을 다 모와 거나리고 날마다 즐기실 제 先生을 愛敬허스 못미칠 듯 하오시니  
 아마도 聖代에 豪華樂事 | 이밧게 또 어디 잇스리  
 先生號雲崖也 又石尙書愛以敬之逐日團會 眞可謂聖代豪華樂事也(『금옥총부』 165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민영의 序에는 癸酉年 五月 당시의 승평계 구성원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昇平稷 主役 : 朴孝寬, 安玟英
- ㉡ 豪華風流通音律者 : 朴漢英, 孫德仲, 金洛鎭, 姜宗熙, 白元圭, 李濟榮, 鄭錫煥, 崔鎭泰, 張甲福
- ㉢ 名歌 : 崔壽福, 黃子安, 金啓天, 宋元錫, 河駿鯤, 金興錫
- ㉣ 名琴 : 吳岐汝, 安敬之, 洪用卿, 姜卿仁, 金君仲
- ㉤ 伽倻琴名手 : 金士俊, 金士極
- ㉥ 名簫 : 李聖教, 金敬南, 沈魯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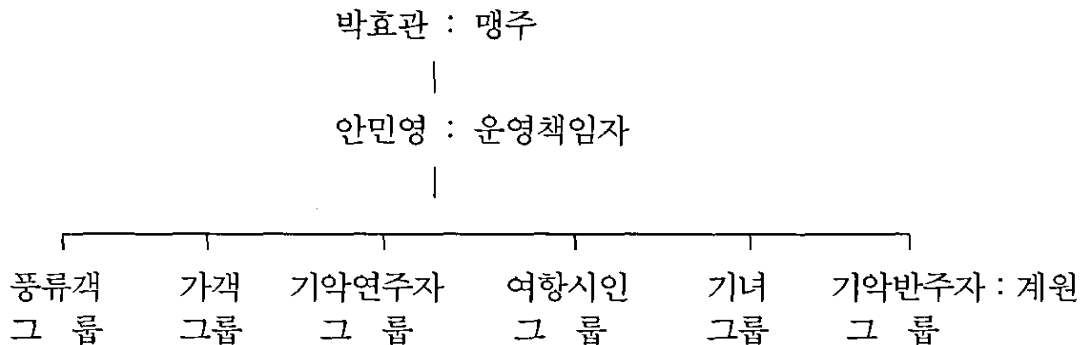
18) 승평계에 대해서는 김석배, 「승평계 연구」, 『문학과 언어』 25(문학과언어학회, 2003)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 ㉔ 名笙 : 金雲才
- ㉕ 良琴名手 : 安聲汝
- ㉖ 遺逸風騷者 : 洪振源, 徐汝心
- ㉗ 名姬 : 大邱 桂月, 江陵 杏花, 昌原 柳綠, 潭陽 彩姬, 完山 梅月, 完山 蓮紅
- ㉘ 賢伶 : 千興孫, 鄭若大, 尹順吉

㉔의 박효관은 맹주, 안민영은 승평계의 실질적 운영자로 승평계의 주역이고, ㉕는 음률에 통달한 풍류객그룹이며, ㉖는 가곡창에 능한 가객그룹이다. 그리고 ㉗-㉘는 기악명인으로 기악연주자그룹이고, ㉙는 한시에 능한 여향시인그룹이며, ㉚는 가곡창과 芻才에 능한 기녀그룹이고, ㉛는 균영 소속 세악수 출신의 기악반주자그룹이다.

승평계의 구성원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승평계가 이와 같이 다양한 부류의 인물로 조직된 것은 가곡이 絲竹반주를 필수로 하는 성악이기 때문이다. 가곡은 時調詩를 엮어 부르지만 시조창과는 달리 5장으로 나누어 부른다. 大餘音, 初章·二章·三章, 中餘音, 四章·五章, 大餘音으로 구성되는데, 대여음은 前奏 또는 後奏에, 중여음은 間奏에 해당되며 기악반주-거문고, 가야금, 양금, 세피리, 대금, 해금, 단소, 장고 등-만으로 연주된다. 시조가 가사 전달에 묘미가 있는 것이

라면 가곡은 가사 내용보다는 삼현육각과 어우러진 격조 높은 음악성을 감상하고 즐기는 것이다.<sup>19)</sup> 가곡풍류판은 이와 같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자리해야만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승평계 구성원들 또한 다양한 부류의 인물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승평계 구성원들은 모두 지체 낮은 중인출신이거나 천민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에 관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다행히 궁중연향을 기록한 각종 『儀軌』와 『吹鼓手軍案』,<sup>20)</sup> 『內吹定例』, 『금옥총부』 등에 그들에 관한 단편적인 자료들이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해 그들 중의 일부에 대한 면면을 살필 수 있다.<sup>21)</sup>

### 1) 昇平契 主役

승평계의 맹주는 박효관이고, 승평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안민영으로 두 사람은 명실상부한 승평계의 주역이었다.

朴孝寬(1800년-1881년경)은 忠州人으로 字는 景華이고, 號는 雲崖인데, 운애는 대원군이 내린 호이다. 박효관은 호조의 서리를 지낸 것으로 보이고 同樞 직함을 지냈다.<sup>22)</sup> 吳東萊에게 가곡을 배워 당대 제일의 가객으

19) 장사훈, 『국악총론』, 정음사, 1983, 245쪽.

20) 『취고수군안』은 1880년(고종 17년) 武衛所에서 작성한 軍案으로 '취고수'의 신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취고수군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우에무라 유키오, 「19세기말의 취고수와 세악수」(『한국음악사학보』 20, 한국음악사학회, 1998)에서 이루어졌다.

21) 자세한 것은 김석배, 「승평계 연구」, 『문학과 언어』 25(문학과언어학회, 2003)로 미룬다.

22) 박효관은 서리 출신으로 朴永元의 僮人인 李潤善과 교류하였는데, 이윤선의 『公私記攷』(권 3, 계해 5월 26일)에 자신의 再從妹 혼인에 박효관을 동원하였다고 했다.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212쪽, 주 8). 계해년(1863)에 이윤선이 박효관을 守軍이라는 직함으로 부르고 있으므로 박효관은 오군영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무경,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서, 2004, 70쪽, 주 12).

로 이름을 날렸으며 최수복에게 가곡을 전하였다. 그는 인왕산 아래 필운대에 은거지인 雲崖山房을 마련하고 승평계를 조직하여 그 맹주로서 가곡풍류판을 주도하였고, 만년인 1876년(고종 13년)에 高弟 안민영과 더불어 『가곡원류』를 편찬하였다.

安玟英(1816년-1885년 이후)은 廣州 출신의 順興人으로 서리를 지냈던 것으로 짐작된다. 字는 聖武, 初字는 荊寶(荊甫)이고, 號는 周翁 또는 口圃東人이다. 口圃東人은 대원군이 내린 호이다. 성품이 호방하고 풍류를 즐겨하여 詞曲을 즐겨 배웠고, 당대의 풍류객·예인들과 어울려 풍류판을 주름잡았다. 박효관에게 가곡을 배워 노래를 잘 짓고 音律에 정통하였지만 가곡창보다는 춤에는 더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승평계를 움직인 실질적인 책임자였고, 박효관과 함께 『가곡원류』를 편찬하였다.

## 2) 風流客그룹(豪華風流通音律者)

호화풍류통음율자는 풍류판을 열어 가곡을 즐겼던 음률에 밝은 중인계층의 풍류객들로서 승평계 운영 및 풍류판에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승평계 내에서 박효관·안민영 다음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朴漢英은 字가 士俊이고 號는 蓮湖로 安山에 別業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던 풍류객이다. 평양에서 監牧官을 지냈고, 안민영과 각별했던 인물이다. 姜宗熙는 字가 景學, 號는 木山으로 同樞 직함을 가졌고, 李濟榮은 字가 公楫이고, 張甲福은 천주교 신자 南宗三의 집을 염탐하여 1886년에 천주교 신유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한 대원군의 심복이다. 孫德仲·金洛鎭·白元圭·鄭錫煥·崔鎭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 3) 歌客그룹(名歌)

名歌는 뛰어난 가곡의 가창능력을 지닌 자들로서 풍류판에서 가곡을 불렀고, 좌상객이 되기도 했다. 이들을 '가객'으로 불렀던 것은, 그들이 技藝를 업으로 하여 돈을 받지 않았고, 기예가 文氣가 있어 품위 있는 예술을 창조하는 예술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sup>23)</sup>

崔壽福은 그간 崔守甫로 알려졌던 인물인데, 오동래에게 가곡을 배웠고 하준곤에게 가곡을 전수하였다. 黃子安은 경진년 풍류판(『금옥총부』 178번)에서 박효관과 함께 좌상객이었고, 안민영이 '黃先生 子安'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박효관과 동년배의 가객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河駿鯤은 그간 河仲鯤, 河仲權, 河俊權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졌던 인물로 최수복에게 가곡을 배웠고 명완벽에게 전수하였다. 金啓天·宋元錫·金興錫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 4) 器樂演奏者그룹(名琴·伽倻琴名手·名簫·名笙·良琴名手)

이들은 풍류판에서 기악연주를 하면서 풍류를 즐긴 부류이다. 거문고를 취미로 연주하는 名琴은 소위 여향의 '律客'들이고, 그 외는 모두 장악원 소속의 악공들로서 전문적인 기악연주자들이다.

## ① 名琴(거문고명인들)

安敬之(?-1885 春)는 안민영과 한 집안으로 50여년 교유하였는데, 敬之는 字이고, 號는 春園으로 무관직인 僉使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姜卿仁은 『금옥총부』 81번의 秋槩이라는 호를 가진 姜大雅 곧 姜瑋일 가능성이 크다. 강위(1820-1884)는 廣州의 武弁 출신으로 사대부 명문인 鄭健

23) 이보형, 「판소리 공연문화의 변동이 판소리에 끼친 영향」, 『한국학연구』 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5, 287-288쪽.

朝家の 門客이었는데, 뛰어난 詩才로 六橋詩社의 맹주로 활약하였고, 문집 『古歡堂收艸』를 남겼다.<sup>24)</sup> 金允錫(?-1883년)은 字는 君仲이고 號는 碧江이고, 吳岐汝와 洪用卿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 ② 珈儻琴名手(가야금명인들)

金士俊은 典樂을 지낸 金宗崙으로 士俊은 字로 짐작된다. 김종윤은 慶州人으로 金昌河의 아들이요 金宗南의 從兄으로 假典樂을 거쳐 典樂이 되었다. 金士極은 제1대 國樂師長을 지낸 金宗南으로 士極은 字이고 號는 海隱이다. 가야금 명인인 金昌綠의 둘째 아들이며 金寧濟의 養祖父이다. 假典樂을 거쳐 典樂이 되었으며, 戊辰年(1868), 癸酉年(1873), 壬辰年(1892)의 進宴儀式에 참여하였고, 辛丑年(1901)과 壬寅年(1902) 進宴儀式의 執事樂師였다.

### ③ 名簫(대금명인들)

金敬南은 1912년 조선정악전습소의 거문고 교사를 지낸 金景南이다. 韓末 거문고 三絶의 한 사람으로 가곡 반주에 뛰어났는데, 그의 가락은 주로 민간음악인인 高翊相·趙彝淳·金兌英·林錫潤 등에게 전해졌다. 김경남은 도처에서 멋과 흥취에 넘치는 가락을 쓰고 있는데 이를 ‘興치’-일명 ‘解彈’, 原曲 가락에서 벗어난 변주-라고 한다. 李聖敎과 沈魯正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④ 생황명인(名笙)인 金雲才와 양금명인(良琴名手)인 安聲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24) 허경진, 『조선위향문학사』, 태학사, 1977, 319-342쪽 참조. 정옥자, 『조선후기문화운동사』, 일조각, 1988, 249-250쪽 참조.

## 5) 閭巷詩人그룹(遺逸風騷者)

유일풍소자는 중인계층의 여항시인그룹으로 가곡창에 필요한 가사 창작에 일조하였을 것이다. 洪振源은 洪鎭源으로 알려졌던 인물로 名歌로 이름이 높았고, 박효관에게 가곡을 배웠으며, 秋數敎에게 전하였다. 徐汝心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 6) 妓女그룹(名姬)

名姬는 妓女들로 풍류판에서 가곡창과 呈才를 하였다. 조선시대의 기녀는 京妓와 鄉妓로 나눌 수 있다. 京妓는 掌樂院 소속의 女妓, 內醫院과 惠民署 소속의 醫女(藥房妓生), 尙衣院과 工曹 소속의 針線婢(尙房妓生) 등으로 장악원 기녀들은 궁중음악을 담당하였고, 약방기생들은 여성 진료의 일을 하는 한편 歌舞를 익혀 妓業을 겸업하였으며, 상방기생은 임금의 의복과 군인의 의복을 제작하는 한편 역시 妓業을 겸업하였다. 향기는 六鎭, 각도의 감영, 州郡의 관아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서울에서 일정기간 의녀나 침선비로 身役을 치르는 동안은 京妓가 된다.<sup>25)</sup>

宮中宴享은 중요한 국가의식으로 격식과 규모를 갖춘 성대한 연향을 ‘進宴’이라 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연향을 ‘進饌’이라고 하며, 尊號를 올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의식을 ‘進爵’이라고 한다.<sup>26)</sup> 진연·진찬·진작의 경우 外宴은 君臣이 주축이 되는 연향으로 왕비나 命婦 등 여성이 참여하는 경우가 없고, 內宴은 대비·왕·왕비·왕세자·왕세자빈·공주를 포함

25) 신경숙, 「정가 가객론」, 『한국학연구』 9,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7, 112-121쪽. 자세한 것은 서인화, 「掌樂院의 官員·樂人·習樂」(『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국립국악원, 2001)과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 연구』(민속원, 2001)을 참고할 것.

26) 신경숙, 「안민영과 기녀」, 『민족문화연구』 10,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58쪽.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1, 43-82쪽 참고.

한 왕실가족과 봉호를 가진 여성인 명부가 주축이 되는 연향으로 종친·의빈·척신 등의 왕실 친인척이 참여하기도 한다.<sup>27)</sup> 따라서 외연의 경우에는 舞童이 朶才를 공연하며 儀仗을 들거나 연향을 돕는 모든 差備도 남자였고, 내연에는 대부분의 경우 女伶이 정재를 공연하며 의장을 들거나 연향을 돕는 차비도 대개 여자였다.

『승평곡』에 등장하는 기녀 중에서 완산 매월을 제외한 대구 계월, 강릉 행화, 창원 유록, 담양 채희, 완산 연홍은 모두 고종시대에 행해진 각종 궁중연향의 朶才女伶과 侍衛女伶이었다.<sup>28)</sup>

- ① 戊辰年 進饌儀式 : 고종 5년(1868) 12월, 대왕대비(익종비) 회갑 경축 진찬
- ② 癸酉年 進爵儀式 : 고종 10년(1873) 4월, 대왕대비 책봉 40년 경축 진작
- ③ 丁丑年 進饌儀式 : 고종 14년(1877) 12월, 대왕대비 칠순 경축 진찬
- ④ 丁亥年 進饌儀式 : 고종 24년(1887) 1월, 대왕대비 팔순 경축 진찬
- ⑤ 壬辰年 進饌儀式 : 고종 29년(1892) 9월, 大殿 望五(41세) 및 즉위 30년 경축 진찬
- ⑥ 癸巳年 會禮宴 : 고종 30년(1893) 2월, 세자 탄신 경축 회례연
- ⑦ 癸巳年 養老宴 : 고종 30년(1893) 3월, 養老宴
- ⑧ 癸巳年 進饌儀式 : 고종 30년(1893) 10월, 선조대왕 回鑾 5회갑 기념 진찬
- ⑨ 甲午年 進宴儀式 : 고종 31년(1894) 2월, 왕세자 望三(21세) 경축 진연과 會宴
- ⑩ 辛丑年 進饌儀式 : 광무 5년(1901) 5월, 명헌태후 望八(71세) 경축 진찬
- ⑪ 辛丑年 進宴儀式 : 광무 5년(1901) 7월, 大殿 50세 경축 진연
- ⑫ 壬寅年 進宴儀式1 : 광무 6년(1902) 4월, 大殿 耆老所 입사 경축 진연

27)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1, 82쪽.

28) 김영운, 「『정재무도홀기』 해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1쪽), 신경숙, 「안민영과 기녀」, 『민족문화연구』 10(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민속원, 2001), 김종수, 「19세기-20세기초 궁중연향의 樂歌舞 差備 고찰 -여령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2(한국국악학회, 2002)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는데, 특히 김종수의 연구성과에 크게 도움 받았다.

⑬ 壬寅年 進宴儀式2 : 광무 6년(1902) 11월, 大殿 望六(51세)과 즉위 40년 경축 진연

대부분의 연향은 의궤가 남아 있어 여령들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고, 기사년과 갑오년 연향의 의궤가 남아 있지 않지만 기사년의 연향은 『문才舞圖笏記』가 남아 있어 여령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승평곡』에 등장하는 기녀들이 참여한 궁중연향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9)</sup> 행화와 연흥은 두 명의 동명이인이 등장하는데 정재 기량이 뛰

29) 이들의 역할을 연향별로 정리하되 정재여령/시위여령의 순으로 정리한다. ①무진년 내진찬 : 계월-夢金尺·獻仙桃·佳人剪牡丹·船遊樂·寶相舞/左右命婦 饌床差備, 유록-헌선도·拋毬樂·선유락·보상무/東西唱·좌우명부 찬상차비, 연흥-헌선도·선유락, ②계유년 내진작 : 계월-於休章·몽금척·響鈴舞·보상무·長生寶宴之舞·포구락·劍器舞/外賓 頒花時 唱名差備·執事, ③정축년 내진찬 : 연흥-몽금척·선유락/大殿 繖扇差備, ④정해년 내진찬 : 행화-장생보연지무·壽延長·牙拍舞·가인전목단·演百福之舞·선유락/世子宮 陪衛·大殿 侍衛, 채희-몽금척·헌선도·향령무·보상무·선유락/세자궁 達字差備, ⑤임진년 내진찬 : 계월-수연장·몽금척·荷皇恩·선유락/宣敎差備·세자궁 代致詞差備·세자궁 讀箋文差備, 행화-제수창·수연장·보상무·연백복지무·선유락/세자궁 달자차비, 연흥-보상무·포구락/대전 日傘差備·세자궁 奉睿饌·세자빈궁 陽繖차비, ⑥기사년 연향 : 계월-몽금척·慶豐圖·帝壽昌·수연장·선유락, 행화-高句麗舞·제수창·수연장·보상무·연백복지무·선유락, 채희-하황은, ⑦신축년 5월 내진찬 : 행화-太后殿 靑蓋差備, 유록-무고/태후전 봉어찬차비·대전 봉어찬차비·왕태자 봉어찬차비·좌우명부 찬상차비, 채희-후창악장·장생보연지무·催花舞·봉래의·수연장·四仙舞·포구락/대전 시위·대전 啓字差備, ⑧신축년 7월 내진찬 : 계월-가인전목단·포구락/황태자 蓋差備, 행화-가인전목단·舞鼓/황태자 양산차비, 유록-가인전목단·무고·선유락/대전 扇差備·대전 봉어찬차비·황태자 진예찬차비·宗親 戚臣 引接, 채희-鳳來儀·수연장·보상무·六花臺·萬壽舞·연백복지무·사선무·疊勝舞·장생보연지무·포구락·선유락/영친왕 前引差備, ⑨임인년 4월 내진연 : 계월-무고·연화대·선유락/대전 봉어찬차비·황태자 진예찬차비·군부인 典膳差備·종친 行酒差備, 행화-무고·연화대·선유락/종친 인접, 유록-몽금척·수연장·선유락/황태자 배위, 연흥-보상무·연화대·경풍도·포구락·선유락/대전 扇差備·대전 奉花兼奉揮巾差備, ⑩임인년 11월 내진연 : 계월-무고·연화대·선유락/대전 奉花兼奉揮巾差備·대전 어찬차비·황태자 進揮巾兼進匙樸차비·봉어찬차비·황태자 陪致詞差備·황태자비 봉어찬차비·황태자비 양산차비·영친왕 頒花



어난 행화와 연흥이 승평계의 구성원이었을 것이다.<sup>30)</sup>

|    | 무진년 | 계유년 | 정축년 | 정해년 | 임진년 | 계사년 | 신축년<br>5월 | 신축년<br>7월 | 임인년<br>4월 | 임인년<br>11월 |
|----|-----|-----|-----|-----|-----|-----|-----------|-----------|-----------|------------|
| 계월 | ○   | ○   |     |     | ○   | ○   |           | ○         | ○         | ○          |
| 행화 |     |     |     | ○   | ○   | ○   | ○         | ○         | ○         | ○          |
| 유록 | ○   |     |     |     |     |     | ○         | ○         | ○         | ○          |
| 체회 |     |     |     | ○   |     | ○   | ○         | ○         |           |            |
| 연흥 | ○   |     | ○   |     | ○   |     |           |           | ○         | ○          |

### 7) 器樂伴奏者그룹(賢伶)

기악반주자그룹은 군영 소속 細樂手들이다. 서울의 五軍營(御營廳·訓練都監·禁衛營·摠戎廳·龍虎營)과 宣傳官廳, 각 지방의 관찰영·병마절도영·수군절도영 및 기타 관아에 세악수와 최고수가 배치되어 軍樂을 담당하였는데, “세악수의 악곡은 취타, 가곡, 도드리, 다짱 등을 주로 하였으나 궁중음악에 비하면 그 정도가 훨씬 저하하나 가곡 반주만은 그 기교가 가장 우수”<sup>31)</sup>하여 여항의 음악 수요를 담당하였다

千興孫은 龍虎營 소속의 細樂手(피리전공자)로 尹義成(전공 미상), 金得完(피리전공), 李貴成(대금전공)의 스승이었다. 鄭若大는 御營廳 소속 細樂手(대금전공자)로 戊申年(헌종 14년, 1848년) 通明殿에서 있었던 進饌儀式의 大筈差備였다. 10년을 하루같이 인왕산에 올라 ‘도들이’를 연습했는데, 한 곡조가 끝날 때마다 나막신에 모래 한 알을 넣어 모래알이 가

差備·군부인 饌卓差備, 행화 執拍·제수창·무고·선유락 / 종친 酒卓差備, 유록-몽금척·수연장·포구락·선유락 / 황태자 배위, 연흥-수연장·가인전목단·포구락·선유락·검기무 / 대전 扇差備·황태자 前導差備.

30) 동명이인의 연흥과 행화가 참여한 연흥은 ①의 연흥2-선유락/大妃殿 奉御饌差備, ④의 행화2-선유락, ⑩의 연흥2-포구락 등이다.

31) 성경린, 「대취타」, 『무형문화재 : 음악편』, 94쪽.

득 차야 집으로 왔다고 하며, 어느 날 나막신에 쌓인 모래에서 풀잎이 올라 왔다는 일화가 전한다.<sup>32)</sup> 尹順吉은 訓練都監(1870년 임영) 소속 細樂手(細樂手1, 細樂兼內吹)인 대금전공자 金光洙(1841년 생)의 스승이었다.<sup>33)</sup>

## 5. 결론

본고에서는 최근에 발견된 안민영의 개인가집인 『승평곡』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승평곡』에 수록된 안민영의 序를 통해 이제까지 대체적인 윤곽만 알 수 있었던 승평계 구성원들이 밝혀짐으로써 19세기 후기의 가곡사 이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평곡』은 안민영이 계유년(1873) 4월의 진작의식을 경축하기 위해 연 승평계의 풍류회를 자축하기 위해 5월 하순에 만든 안민영의 개인가집이다. 여기에는 안민영의 자작 시조시 12수가 가곡창의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작품들은 당시의 가곡풍류회에서 연창된 가곡 중에서 자신의 작품만 골라 수록한 것이다.

둘째, 안민영의 서는 『승평곡』의 서(계유년, 1873→『해동악장』의 서(병자년, 1876)→『금옥총부』의 서(경진년, 1880)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동악장』의 서는 『승평곡』의 서를 바탕으로 다듬었고, 『금옥총부』의 서는 『승평곡』과 『해동악장』의 서를 바탕으로 다시 다듬은 것이다.

셋째, 승평계는 가곡이 관현악 반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룹으

32) 장사훈, 『국악명인전』, 세광음악출판사, 1989, 74쪽.

33) 우에무라 유키오, 「19世紀末의 吹鼓手와 細樂手 -『內吹定例』·『吹鼓手軍案』의 분석-」, 『한국음악사학보』 20, 1998, 666쪽.

로 구성되었다. 1873년 5월 당시의 승평계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승평계의 맹주인 朴孝寬과 운영책임자인 安玟英을 비롯하여 풍류객그룹(豪華風流通音律者)인 朴漢英·孫德仲·金洛鎭·姜宗熙·白元圭·李濟榮·鄭錫煥·崔鎭泰·張甲福, 가객그룹(名歌)인 崔壽福·黃子安·金啓天·宋元錫·河駿鯤·金興錫, 기악연주자그룹인 거문고명인(名琴) 吳岐汝·安敬之·洪用卿·姜卿仁·金君仲, 가야금명인(伽倻琴名手) 金士俊·金士極, 名簫인 李聖教·金敬南·沈魯正, 생황명인(名笙) 金雲才, 양금명인(良琴名手) 安聲汝, 여항시인그룹(遺逸風騷者)인 洪振源·徐汝心, 기녀그룹(名姬)인 大邱 桂月·江陵 杏花·昌原 柳綠·潭陽 彩姬·完山 梅月·完山 蓮紅, 기악반주자그룹(賢伶)인 千興孫·鄭若大·尹順吉 등이다. 이들은 출신성분과 승평계에서의 역할과 위상도 다르지만 모두 당대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자들이다. 박효관과 안민영은 승평계의 주역이었고, 음률에 밝은 중인계층의 풍류객그룹은 후원자로서 승평계 운영 및 풍류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그리고 가곡창에 뛰어난 가객그룹은 가곡을 불렀고, 기악명인인 기악연주자그룹은 가곡반주에 필요한 거문고·가야금·대금·생황·양금 등의 기악을 연주하였다. 또한 여항시인그룹은 가곡창에 필요한 시조시 창작에 일조하였고, 각종 궁중 진연의식의 정재여령인 기녀그룹은 풍류판에서 가곡을 부르거나 정재를 하였으며, 오군영 세악수 출신의 기악반주자그룹은 가곡반주에 필요한 피리·대금·해금 등을 연주하였다.

## 【참고문헌】

- 강전섭, 『『금옥총부』에 대하여』, 『한국고전문학연구』, 대왕사, 1982.
- \_\_\_\_\_, 「안민영 서문의 '爰錄于曲譜之末'에 대한 釋明」, 『시조학논총』 16, 한국시조학회, 2000.
- 권두환, 「조선후기 시조가단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 김석배, 「승평계 연구」, 『문학과 언어』 25, 문학과언어학회, 2003.
- \_\_\_\_\_, 「〈승평곡〉에 대하여」, 『선주논총』 6,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2003.
- 김신중, 『역주 금옥총부』, 박이정, 2003, 39-40쪽.
- 김영운, 「『정재무도홀기』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1쪽.
-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 민속원, 2001.
- \_\_\_\_\_, 「19세기-20세기초 궁중연향의 樂歌舞差備 고찰 -여령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2, 한국국악학회, 2002.
- 김현석, 「안민영의 가집편찬과 시조문학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9, 12-16쪽.
- 박제형, 이익성 옮김, 『조선정감』, 한길사, 1992, 42쪽.
- 서인화, 「掌樂院의 官員·樂人·習樂」,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국립국악원, 2001.
- 성경린, 「대취타」, 『무형문화재 : 음악편』, 94쪽.
- 성무경,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서, 2004, 70쪽.
- 신경숙, 「안민영과 기녀」, 『민족문화연구』 10,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 \_\_\_\_\_, 「안민영과 예인들-기악연주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41, 안암어문학회, 2000, 281쪽.
- \_\_\_\_\_, 「정가 가객론」, 『한국학연구』 9,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7, 112-121면, 122-124쪽.
- \_\_\_\_\_, 「안민영 예인집단의 좌상객 연구」, 『한국시가연구』 10, 한국시가학회, 2002.
- \_\_\_\_\_, 「『가곡원류』 여창사설 확대의 의미」, 『국악원논문집』 14, 국립국악원, 2002, 195쪽.

- 우에무라 유키오, 「19世紀末의 吹鼓手와 細樂手 -『內吹定例』·『吹鼓手軍案』의 분석-」, 『한국음악사학보』 20, 1998, 666쪽.
-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212쪽.
- 이동복, 「박효관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연구」, 『국악원 논문집』 14, 국립국악원, 2002.
- 이보형, 「판소리 공연문화의 변동이 판소리에 끼친 영향」, 『한국학연구』 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5, 287-288쪽.
- 이숙희, 「조선후기 오영문의 음악과 그 전승」,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국립국악원, 2001.
- 장사훈 『국악사론』, 대광문화사, 1983, 234-238쪽.
- \_\_\_\_\_, 『국악명인전』, 세광음악출판사, 1989, 64-65쪽, 74쪽, 160쪽.
- \_\_\_\_\_, 『국악총론』, 정음사, 1983, 245쪽.
- 정무룡, 「조선조 가객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정옥자, 『조선후기문화운동사』, 일조각, 1988, 249-250쪽.
- 조운제, 『朝鮮詩歌史綱(訂正版)』, 박문출판사, 1950.
- 최동원, 『고시조론』, 삼영사, 1980, 293-296쪽.
- 허경진, 『조선위향문학사』, 태학사, 1977, 319-342쪽.

Abstract

## A Study on 『Seungpyeonggok』

Kim, Sug-B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Seung-pyeonggok』, Ahn Min-young's private collection of *sijos* recently found out. Through the preface to 『Seungpyeonggok』 written by Ahn, the members of the Seungpyeonggye Group, whom we were not clearly aware of, have been revealed, which can contribute to the history of *gagok*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Seungpyeonggok』 is Ahn Min-young's private collection of *sijos* to celebrate an outdoor party of the Seungpyeonggye Group in May 1873. It contains Ahn's 12 self-written *sijos* which were selected from among a lot of *gagoks* sung at the party.

2. The preface to 『Seungpyeonggok』 affected the introduction of 『Haedongakjang』 (1876), which also had an effect on the foreword of 『Geumokchongbu』 (1880).

3. The Seungpyeonggye Group was composed of its leader Park Hyo-gwan, its coordinator, Ahn Min-young, and other small groups such as that of men of taste, poets, *gagaeks*, instrument players, *gisaeng*, and accompanists and so forth. Their social standings, and roles were different, but each of them were well-known in his field at that time. The group of men of taste donated some money for the operation of the Seungpyeonggye Group and its outdoor parties. The group of *gagaeks* sang *gagok* and that of instrument players played *geomungo*, *gayageum*, *saenghwang*, *yanggeum*, etc. The poet group wrote poems for the *gagok*. The group of *gisaeng* sang *gagok* and danced. The accompanist group played *piri*, *daegeum*, *haegeum*, etc.

### Key Word

『Seungpyeonggok』, Ahn Min-young, Seungpyeonggye Group, Park Hyo-gwan, *gagok*, men of taste, poets, *gagaeks*, instrument players, *gisaengs*, accompanists